

피로 값주고 산 축복

우리의 믿음이 살아 있는 믿음이 된다면 그리스도의 피의 복된 효과들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또한 그 효과들이 언제나 지속되며, 그 효과는 모든 것을 포괄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1. 그 피에는 신적인 효능이 있다.

예수께서 그의 피로 사망과 하데스의 문들을 깨뜨리시고 거기에 갇힌 자들을 이끌어 내신다. 그리고 그는 정복자가 되셔서 하늘의 문들이 “그 피”를 위하여 열려진 것을 보셨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지성소를 소유하셨다. 그 때에 죄를 위하여 화목을 이루는데, 죄의 저주를 제거하는데, 지성소를 여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 시키는데에서 그 피가 드러내었던 것과 유사한 놀라운 능력이 오늘날에도 역사하는 것이다. 그 최고의 역사들, 곧 죄와 그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능케 하고 지옥을 부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능력이 오늘 날에도 똑 같이 우리 영혼에 뿌려질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신적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 그 이유는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되고 깨끗이 씻음을 얻었다는 생각 만으로도 우리의 영혼들은 기뻐 뛰었을 것이고, 사랑이 넘쳐 흐르게 되었을 것이다. 그 피를 믿는 믿음을 발휘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누리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끼며, 죄의 저주와 권세에서 구원받은 영광이 영혼 속에서 넘쳐흐르게 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일깨움을 받아 모든 것을 정복하는 그 피의 능력을 기대하도록 되어야 한다. **비록 우리의 느낌에 당장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자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고요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에 고정 시키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효능을 발휘하면, 그 피는 화목을 위해서 신적인 능력으로 역사할 것이다. 혹은 하나님과 연합을 위해서나, 혹은 거룩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신적인 능력으로 역사할 것이다. 지금 당장 눈에 보

이지 않고 기대하는 때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새롭게 또한 더 깊이 체험하게 될 것이다.

II. 그 피의 영속적인 효능을 확신하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단번에 드러 졌다. 어느 한 순간이라도 그 피가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때가 없다. 하늘의 지성소의 보좌 앞, 그 피가 있는 그곳에는 모든 것이 영원한 능력 가운데서 사라짐도 감소도 없이 존재한다. 하늘의 성전에서 이루어진 모든 활동들은 우리를 위한 것이며,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활동의 결과들이 우리에게 전달 된 다. 그가 스스로 왕이시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있는 모든 것들과 그리고 장차 거기서 이루어질 모든 것들에 참여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도 바로 그분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충만히 누리며 거하기를 사모한다면 그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의 얼룩 들에서 우리의 영혼을 늘상 깨끗이 씻는 체험을 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의 피의 교제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평화와 기쁨과 능력을 알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피가 하늘에서 행하는 그 영원하고 절대로 끊이지 않는 활동들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서도 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III. 그 피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제사장들은 그 직분을 위하여 세움을 받을 때에 **귀의 끝부분과 엄지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발랐다, 귀는 하나님을 위하여 듣고, 손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며, 발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 사람 전인을 하나님의 소유로 취하였다는 뜻이다. **신자의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신자의 전인에 대하여 그와 비슷한 권세를 발휘하여 그를 거룩하게 세워서 주를 섬기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신자들은 그들의 삶이나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상태에서 구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것을 덮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히 9:22).** 신자의 인격을, 그의 온갖 정황과 형편과 함께 지성소 안으로 가져가야 한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체험을 누리기 위해서는 완전히 굴복 하는 일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다. **신자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도록 자신을 드러야 한다.** 그 삶의 모든 인간 관계에서 자신을 드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살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만 한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피의 화목하게 하고 깨끗이 씻으며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모든 것을 덮어 줄 것이다.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과 그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자유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골로새서 1:19-20

19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모든 피조물에게 미친다.

벤전 1:18-19

18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작가 하비갈 양은 항상 깨끗이 씻어주는 그 피의 능력이 이룰 수 있는 능력에 대하여 깨닫고서 비로소 그녀의 영적 생활에 새로운 체험이 시작 되었다고 말했다. 얼마후 그녀는, “이 감추어진 피의 능력은 오로지 계속해서 내주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드러나고 체험 할 수 있다는 것을 갈수록 더 분명하게 깨닫는다”고 고백했다.

피로 값주고 산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그 피에는 신적인 효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 피의 영속적인 효능을 확신하고, 그 피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하비갈 양이 피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그 작품과 그 인생에 놀라운 열매를 누리고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피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한다.